

현대 건축의 新디자인 개념에 관한 연구

— 포스트모던 건축의 수사학적 표현 기법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New Design Concept in the Contemporary Architecture

— Focused on the rhetorical expression of the Postmodern Architecture —

김은지* / Kim, Eun-Ji

이정욱** / Lee, Jeong-Wook

Abstract

The point of this study consists in analysing influences of the postmodern design in the contemporary architecture. Since the modern architecture, new concept of architectural design has been materialized in the Late-Modern and the High-tech style but the revolutionary changes has been tempted by the postmodern architects who introduced the Rhetorical language in the contemporary architecture. In concrete terms postmodern architecture divided architectural elements from existing function (according to U. Eco, it is the primary function of architecture) and gave another function which is the secondary function or the symbolic function or architecture. And the methods of deviation from the conventional code is exactly the rhetorical expression technique which governed the history of art in Europe (but these technique is more intensively applied in the postmodern architecture)

So this study is purposed to analyse the different rhetorical "figures" regarding the syntax and semantic of the architectural language, and particularly to approach to the basic mechanism of the New Design Concept in the Contemporary Architecture.

키워드 : 신 개념, 포스트모던 디자인, 수사학적 표현

1. 서론

1.1. 연구의 목적 및 의의

사회의 다양한 기호와 상징들이 복합적으로 상호 작용하는 현 시대에서 건축의 디자인적 모색은 당연히 복잡하고 혼성적인 양상들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 즉 정보 시대를 맞이한 건축은 인간의 미적 활동과 마찬가지로 매우 다양한 길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도와 그것의 결과가 바로 이 논문에서 기술하고자 하는 과제이다. 사실 건축은 역사적 및 시대적 정신을 항상 반영했다. 즉 근대 건축에서 행해졌던 장식의 남용은 근대 이후 모던 건축으로 넘어가면서 'International Style'이라는 명칭하에 반영식론을 탄생시켰다. 그러나 항상 기존의 이데올로기에 반하는 반동적 시도가 있었던 것처럼 모던 건축에 대한 회의적인 움직임이 후기 산업사회의 등장과 함께 일어났다.

그 결과, 의미론/수사학, 종속적 구분/병렬적 구분, 형이상학/아이러니 등의 대조를 이루는 사상적 대립 양태가 새로운 문체 체계로 부각되었다. 이러한 대립적인 개념은 건축으로 하여금 또 다른 표현 양식을 추구하게 했는데 그것은 바로 모던 건축에서는 볼 수 없었던 건축의 신 미학 즉, 형식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건축을 대중적인 커뮤니케이션으로 정립하려는 표현 기법이다. 다시 말해 현대 건축의 신 미학은 수사적 표현 기법을 적극 사용하는데 이런 디자인에서는 조형적 기호를 비롯한 매우 다양한 유연적인 기호들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¹⁾ 즉 건축 기호는 기능의 지표도 될 수 있지만 이와 동시에 표현 양식의 지표, 건축적 발화행위의 지표도 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문화 현상에는 특유의 코드가 기저한다면 건축 역시 하나의 기호 체계이자 코드로서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이 같은 전제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현대 건축 디자인을 기호학적 및 수사학적으로 분석해 보기로 한다. 이런 의미에서 이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진정한 커뮤니케이션으로서의 건축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는

* 정회원, 강원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 연구원

** 이사, 강원대학교 실내건축학과 조교수

1) 유연적인 기호는 자의적인 기호의 반의어로 정의될 수 있으며 상징 기호의 상위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건축에 관한 기호학적 담론의 합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건축 특유의 기호학적 특징과 구성 체계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본 연구에서는 현대 건축의 범위를 모던 이후의 디자인적 표현 기법을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특히 포스트모더니즘의 등장 이후 나타난 건축 표현의 특성을 연구하고자 한다. 즉 복합적이고 혼합적인 양상을 드러냄으로써 다각적인 해석의 대상이 되고 있는 현대 건축의 신디자인 컨셉트를 살펴보고자 한다. 현대 건축의 표현수법은 건축 기호들의 내·외적 요소들의 변환법과 조형적 소재들을 적극 활용하는데 이것은 방법론적으로 볼 때 언어학과 시학에서 이미 분석된 바 있는 수사학²⁾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미 오래 전부터 존재해온 수사학적 <이미지>들을 건축이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당연히 수사학의 기본 개념을 파악해야 한다. 그러나 수사학을 정의하는 데 따르는 가장 큰 어려움은 표현의 규범적인 형태를 규명하는 일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의 파라미터—첫 번째는 ‘코드의 변환’이고 두 번째는 ‘코드의 생성’—을 설정해서 현대 건축의 기호학적 표현 방법을 분석해 보기로 한다. 여기서 말하는 첫 번째 ‘코드의 변환’이라는 가설적 파라미터는 건축적 요소들의 일차적 기능(본래의 기능)과 이차적 기능(상징적 기능)³⁾의 기존 관계를 과감하게 바꾸는 기법을 의미한다. 그리고 두 번째 ‘코드의 생성’이라는 파라미터는 도상적 차원을 기능에 추가하는 방법이다(예를 들어 얼굴 모양의 집, 배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이런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포스트모던 건축이 적극 사용한 표현 기법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이다.

2. 모던 건축 이후의 형태 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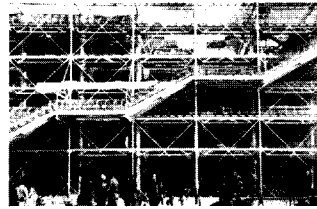
2.1. 新양식주의의 등장

모더니즘 이후 등장한 현대 건축의 경향들은 공간 형태에 풍부한 상상력과 인간적인 건축 표현을 추구하고 있다. 즉 근대 기능주의의 장식 배제와 단순성이라는 일관된 원리에 대한 새로운 반응들이 60년대부터 선보이기 시작하는데 이러한 현상은 현대 건축을 Late-Modern, High-Tech 등의 용어로 구분하는 잣대를 제공하기도 한다. 발생 시기상으로는 레이트모던 건축은 하이테크라는 양식을

2) 수사학은 최초의 응용 언어학으로 고대 그리스의 명망과 운명을 함께 했으며, 르네상스의 인체술과 더불어 구어를 위한 수사학은 다른 학문 분야들처럼 부활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시학으로 흡수된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서면서 구조주의 언어학자들과 특히 기호학자들은 수사학을 재발견함으로써 그것의 진정한 가치를 과학적으로 평가한 뿐만 아니라 포스트모더니즘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체계의 정적인 개념보다는 performance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된다.

3) Umberto Eco, La Struttura Assente, 기호와 현대예술, 김광현 역, 열린책들, 서울, 1998, p.377

포함하는 사조로 볼 수 있으며 과학적 합리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하이테크는 건축을 테크놀로지의 연장선으로 보고 이런 기능성과 실용성 자체를 디자인화 했다.⁴⁾ 다시 말해 현대 자본주의 이념과 근접된 친근한 이미지로 변화시키는 건축적 흐름인 하이테크는 기능 자체가 디자인의 요소로 간주되면서 근대 초기의 정치적 및 형태적인 이념의 문제를 회피하고 재료·구조·역학적인 가능성 등의 절제한 탐구에 기초하는 새로운 미학을 창출하려 했다. 이렇듯 하이테크의 기계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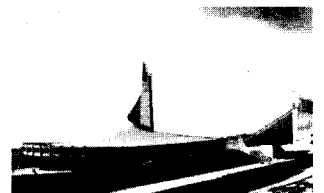


<그림 1> Piano & Rogers, 풍피두센터, 1977

는 모더니즘과는 다르게 표준적 양상보다는 다양성을 추구한다. 그리고 그것은 건축이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켜야 하는 시대를 예견하는 변화이기도 하다. 그림 자료(1)에서 보듯이 로저스(R. Rogers)와 피아노(R. Piano)가 공동 설계한 ‘풍피두 센터’는 하이테크 건축의 수사학적 표현이 전체적으로 집약된 작품으로 그 수사학적 과정은 조각적 형태와 극도의 명료성과 기계미학의 형태로 나타났다.⁵⁾ 반면에 레이트모던 건축은 형식적 측면에서의 양식을 부활시켜 건축의 기능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려는 성향을 드러낸다. 즉 레이트모던 건축에서는 非대칭성, 공간의 非경제적 활용, 형식주의 등이 차츰 고개를 들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경향은 엉뚱한 형태 창조를 위해 과장된 수사학적 방법을 고안한다. 예를 들면 사아리넨(E. Saarinen)의 ‘TWA 공항 터미널’과 겐조 당케(K. Tange)의 ‘올림픽 경기장’은 장식화 된 구조와 의미적 공간의 형태가 혼합, 절충됨으로써 그것이 가지는 내용은 충분히 다양한 해석을 유발시킨다.



<그림 2> Eero Saarinen, TWA 공항터미널, 1962



<그림 3> 겐조 당케, 올림픽 경기장, 1962

이렇듯 모던 건축의 기능주의적 패러다임을 극대화하며 또 하나의 새로운 기계 미학을 탄생시키는 하이테크 건축과 구조적·형식적 측면에서 상징주의를 추구하는 레이트모던 건축은 궁극적으로 건축이라는 메시지 형식에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한 의도라고 할 수 있다.

2.2. 포스트모던 건축의 구성적 특징

포스트모던 이후 현대 건축에서는 후기 산업사회가 불러일으킨 새로운 미적 수요에 대한 대안들로 디자인의 다양성을 추구했으며

4) 이종건, 현대 건축의 하이테크놀로지에 의한 형태 표현 특성에 관한 연구, 홍대 석사논문, 1991, p.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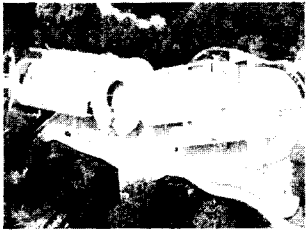
5) Klotz Heinrich, Moderne and Postmodern, 현대건축론, 양동양 편, 기문당, 1991, p.88

이것은 건축 디자인의 획일성을 탈피하게 만들었다. 다시 말해 유니크(unique)한 작품을 만들고자한 포스트모던 건축은 기존의 건축 디자인에 혁명적인 바람을 불어넣었으며 레이트모던이나 하이테크 건축에서는 상상도 못할 컨셉트를 선보인다. 그 중에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1) 균형미에 대한 반란

대다수의 포스트모던 계열의 건축물들은 오랫동안 서양의 건축 미학을 이끌어 온 <균형미>에 대해 반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구로카와(Kisho Kurokawa)의 '현대 예술 박물관'을 비롯하여 알도 로시(A. Rossi)의 'Teatro del mondo', 마이클 그레이브스(M. Graves)의 '월드 디즈니 본부', 찰스 무어(C. Moore)의 '이탈리아 광장'만을 보더라도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비대칭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4> Kisho Kurokawa, 현대 예술 박물관, 1984



<그림 5> Aldo Rossi, Teatro del mondo, 1980

위의 작품들은 각기 나름대로의 디자인적 대안을 추구하면서도 근본적으로는 건축의 '시각적 안정성'을 무시하고 있다. 이렇듯 포스트모던 건축이 기본적으로 추구했던 미학은 건축의 근본적인 기능 내지는 일차적인 기능을 형식적으로 무시하면서 다소 감각적인 형식적 요소들을 앞세워 제 2 또는 제 3의 기능 내지는 역할을 부각시키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는 비대칭성을 가능하게 하는 소재들과 그 소재들의 충격적 혼합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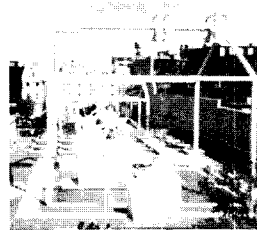
(2) 잠재적인 공간의 활용

그러나 포스트모던 건축을 보다 포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쩌면 한층 더 근본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건축 잠재적인 공간>을 고려해 보기로 한다. 여기서 말하는 잠재적인(potential)인 공간이란 이른바 건축의 계획 전체가 자리를 잡아야 하는 삼차원적 공간을 의미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기능주의와 실용주의를 주된 이데올로기로 삼았던 모던 건축은 당연히 이런 잠재적인 공간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려 했으나 이에 반해 포스트모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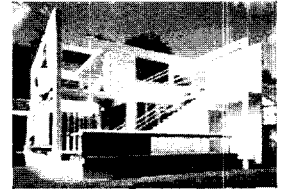
<그림 6> 건축의 잠재적인 공간

건축은 이런 잠재적인 공간을 활용하기는 커녕 과감한 로스(loss)를 행한다(사실 <건축 잠재적인 공간>에 포함되는 또 다른 잠재적인 공간, 즉 <건물의 잠재적인 공간>을 구분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그림 7> Venturi & Rauch, Franklin court, 1972

초래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후기 산업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서 이런 빈 공간이 또 다른 <여유>를 느끼게 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이렇게 무언가를 느끼게 하고 비록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새로운 커뮤니케이션을 가능케 한다는 것은 분명 기호로 취급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림 8> Michael Graves, Benacerraf addition, 1969

벤추리와 로시(Venturi & Rauch)의 'Franklin court'은 <건축 잠재적인 공간>을 새롭게 활용한 건축에 포함될 것이고 그레이브스의 'Benacerraf addition'은 오히려 <건물의 잠재적인 공간>을 새롭게 해석한 사례로 꼽힐 수 있을 것이다. 얼핏보면 이런 구상은 건축 계획상의 非경제성 내지는 공간의 낭비를

2.3. 현대 건축의 커뮤니케이션 개념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건축이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 무언가를 주기 위한 수사적 규칙 체계라면 건축과 일반적인 매스커뮤니케이션의 차이는 과연 무엇인가? 어쨌든 건축도 일종의 매스커뮤니케이션의 형태라는 생각은 비교적 보편화되었다.⁶⁾ 그렇지만 건축을 좀더 세밀히 검토하면 우리는 매스커뮤니케이션 <이상의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건축은 그것이 특정한 기능을 가리키고 그 메시지의 형태가 형태 자체를 구성하는 재료와 전체를 이룬다는 의미에서 설득이라는 목적을 지향하는 기술이다. 따라서 건축은 그것이 상기시키고 외시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그 외시가 내포로 변하는 기호학적 연쇄 작용을 통해(발신자의 건축적 의도를 전달하면서도 서로를 의미하는 외시와 내포 체계를 통해)정보를 증가시킬 수 있는 해석의 방식을 제공한다. 한마디로 건축가는 전혀 다른 기호를 통해 해석될 수도 있는 의미 형태를 발견할 능력이 있어야 하며 이런 능력을 발휘해야 하는 순간은 바로 건축 밖에서 건축의 기호를 찾는 순간이다. 이런 관점에서 현대 건축의 디자인은 기존의 디자인과 다른 무언가를 추구한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건축의 新커뮤니케이션이자 시학(詩學)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3. 포스트모던 건축의 수사학

앞서 언급했듯이 건축에서 포스트모던 계열의 표현 기법들은 기

6)이 문제에 관해서는 아르간(Argan), 아순토(Assunto), 무나리(B. Munari), 메네(F. Mena)의 공동 연구 『디자인과 매스미디어』, 『건축과 대중 문화』, 『디자인과 미적 커뮤니케이션과 매스미디어』를 비롯하여 푸스코(R. de Fusco)의 저서 『매스미디어로서의 건축』을 참고할 수 있다.

존의 건축 코드(일차적 기능)를 위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포스트모던 건축에서 사용되는 조형적 소재들은 건축적 소재와는 상당한 거리감이 있는 도상·기하학적 코드를 비롯하여 영화나 만화, 또는 다른 예술 분야의 코드에서 차용한 요소들도 포함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디자인적 컨셉트는 건축의 시적 언어를 지향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모든 것에는 절충주의에 근거하는 혼성적 표현 양식 내지는 표현적 소재의 혼성적 사용 방식이 내재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미 잘 알려져 있듯이 시적 언어를 분석하는 데는 수사학적 분석이 매우 유용할 뿐만 아니라 수사학은 문예 창작에 토대가 되어 왔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부터는 포스트모던 건축이 일으킨 건축의 시적 표현들을 수사학적 관점에서 분석해 보기로 한다.

3.1. 수사학적 변형

현대 수사학(그림 11)은 수사적 문체들을 기본적으로 <어형 또는 형태 변환 Métaplanges>, <구성 또는 구문 변환 Métataxes>, <어의 또는 의미 변환 Métasémèmes>, <논리 또는 지시대상의 변환 Métalogiques>으로 구분한다. 여기서 말하는 형태 변환은 메시지의 <음성적 또는 철자적 연속을, 즉 음성적 또는 철자적 표지로서의 표현 형식을 변환시키는 조작>을 가리킨다. 또한 구문 변환은 건축 언어의 문법적 또는 통사적 변환을 의미한다(예를 들어 특정한 공간의 생략 내지는 병렬법). 그리고 의미 변환은 말 그대로 본래의 의미를 변환시키는 표현 기법을 말하며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은유의 문체로 귀결되는 변환이다. 마지막으로 논리 변환은 변형의 대상에 따라 완서법, 과장법, 아이러니, 알레고리 같은 이중의 코드가 아닌 다중의 코드를 혼합한다. 다음의 도표는 수사적 문체들을 구조적으로 정리한 것이다.⁷⁾

3.2. 건축 언어의 변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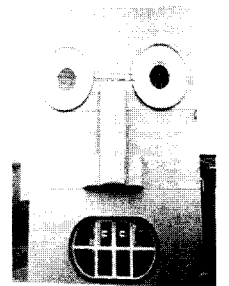
이렇게 그림 11⁸⁾가 현대적 관점에서 재정리한 수사적 문체들은 음성 또는 문자로 표현되는 이른바 언어의 시적 메시지를 분석하는 도구로 사용되어 왔다. 물론 이 네 가지의 변환은 개별적으로 구분되어 사용되기보다는 혼합되어 사용되며 이것은 건축의 시적 언어를 뒷받침하는 분석적 도구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면 이런 분석적 도구를 토대로 포스트모던 건축에서 나타나는 수사적 표현 기법을 살펴해보도록 한다.

<표 1> 수사적 문체들

	변환법			
	문법적(코드)		논리적(지시대상)	
	표현		내용	
조작 대상	어형 변환 (형태 변환)	구성 변환 (구문 변환)	어의 변환 (의미 변환)	논리 변환 (지시대상 변환)
<삭제> 부분 삭제	어두음 생략 어미음 생략 어중음 생략	모음 압축	제유, 은유 직유	완서법
전체 삭제	공백, 삭제	생략, 병렬	없음	목적, 침묵
<첨가> 단순 첨가	어두음 첨가	삽입, 나열, 연쇄	제유, 환칭	과장법
반복 첨가	반복, 음율, 강조	반복 접속사 반복	의미소 탈락법	반복, 중복
<삭제 - 첨가> 부분	유아어, 동어어 말맞추기 고어, 신조어, 차용어 없음	실렙시스 파격구문 범주 이전, 교착어법 없음	은유 환유 모순 형용법	완곡어법 알레고리, 잠언, 동화 아이러니 파라독스 완서법
<대치> 무순	글자 수수께끼	합성어 분리법	없음	논리적 도치 시간적 도치
역전	회문(回文)			

(1) 형태 변환

현대 수사학에서 말하는 형태 변환은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언어학에서는 어형변환으로 어두음·어미음 생략과 같은 부분적인 삭제 및 첨가법을 비롯하여 유아어·신조어·고어법 등을 사용하는 방법을 일컫는다. 따라서 건축에서는 공간을 비롯하여 기본적으로 기능을 갖는 모든 요소들의 형태를 변환시킬 수 있으며 현대 건축은 이런 변환법을 적극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그림 9는 공간 자체에 대한 조형화로 설명될 수 있다. 즉 기본적인 창문과 문이라는 형태를 사람의 눈과 입으로 형태 변환시킨 것은 일종의 강조법 이자 유아어를 지향하는 문체라고 할 수 있다. 한 마디로 이런 형태 변환은 건축 디자인에 유희성을 도입하는 방법으로써 당연히 건물의 기능보다는 형식 자체를 돋보이게 한다. 이런 형태 변환도 나름대로는 非건축적 코드의 도입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그것은 다음 아닌 <도상(圖像)적 코드>이다. 또 다른 형태 변환으로는 차용 및 고어법(古語法)을 들 수 있는데 즉, 건축의 한 요소를 과거의 소재로 대체하는 이런 형태 변환은 건축의 역사적 사례와 문화현상을 중시하고, 그 속에 나타난 형태를 공간 속에서 커뮤니케이션으로 손쉽게 인식



<그림 9> Kazumasa Yamashita, Face House, 1974

시킬 수 있는 이미지를 추구하는 것이다. 한 예로 그레이브스(M. Graves)의 '윌트 디즈니 본부'의 경우는 고대 사원의 파사드가 사용

7)자크 뒤부아(외), 일반 수사학, 용경식 역, 한길사, 1989, pp.75~76.
8)그림 11은 벨기에의 리에쥬Liège 대학 교수(뒤부아J. Dubois, 에델린F. Edeline, 클링켄베르J. M. Klinkenberg, 피르F. Pire, 트리농H. Triron)에 이루어진 연구팀이다. 이 그룹은 '일반 수사학'으로 유명해졌으며 1992년에는 조형 기호를 비롯하여 건축의 수사학까지 다루는 『시각 기호에 대한 논고Traité du signe visuel』(Seuil, Paris)를 발표한 바 있다. 또한 그들은 은유metaphor의 분체를 가장 중점적으로 분석했기 때문에 스스로를 그룹 11이라고 부른 것이다(11은 그리스어의 m이자 metaphor의 머릿글자를 가리킨다).

되는데 이런 표현법은 수사학에서 형태 변환으로서의 고어법이라고 할 수 있다. 어쨌든 이런 형태 변환도 건축의 규범 코드가 아닌 다른 코드를 도입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건축의 <역사적 코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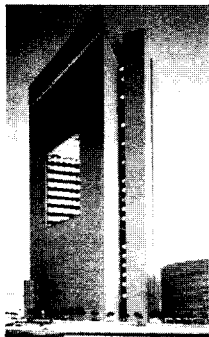


<그림 10> Michael Graves, 월드 디즈니 본부, 19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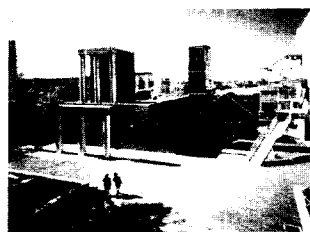
이렇듯 형태 변환을 통해 작가는 독창적 코드를 만드는데 그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외연적 상상을 풍부하게 하기 위한 것이며 동시에 대중에게 한층 더 다가가려는 건축 디자인을 지향하는 데 있다.

(2) 구문(構文) 변환

포스트모던 건축은 건축 언어의 구문론을 새롭게 활용하는 경향을 드러낸다. 즉 문장은 연사구(鉛絲句)⁹⁾로 구성되는 반면에 하나의 건축물은 공간으로 구성되는데 이런 공간은 생략, 병렬, Syllepsis(또는 과격구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고든 번샤프트(G. Bunshaft)의 '국제 상업 은행'에서 작가가 추구하는 빈 공간은 분명히 연사구를 무시하는 것으로 이런 식의 공간 처리는 건물이 앞세우는 장엄의 미학에 '여유'를 부여함으로써 건축적 권위주의를 탈피하게 만들뿐만 아니라 건물 자체에 관심을 집중시키는 이중의 효과를 거둔다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구문 변환으로는 병렬과 실렙시스로써 게리(F. Gerhy)의 'Layola law school'는 공간의 논리적 관계(연사적 관계)를 무시하고 각각의 공간을 병치 및 병렬시키는데 이런 병렬법은 기존의 건축 언어 구문 체계를 거부하는 계획으로 평가될 수 있다. 게리는 균일하고도 연속적인 건물 배치보다는 다양한 요소들의 병치, 그리고 도시를 이미 채우고 있는 다양한 요소들의 가치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¹⁰⁾고 할 수 있다. 결국 이런 변환은 다른 코드의 도입이 아니라 '새로운 코드의 정립'으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며 이런 문체는 에코가 말하는 코드 생성의 문제(즉 건축가를 비롯한 모든 예술가는 한 작품에서 유니크한 코드를 만들 수 있다는 문제)로 집



<그림 11> Gordon Bunshaft, 국제 상업 은행, 19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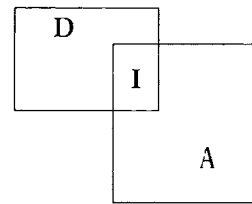
<그림 12> Frank Gerhy, Layola law school, 1984

중의 문제는 에코가 말하는 코드 생성의 문제(즉 건축가를 비롯한 모든 예술가는 한 작품에서 유니크한 코드를 만들 수 있다는 문제)로 집

약될 수도 있을 것이다.¹¹⁾

(3) 의미 변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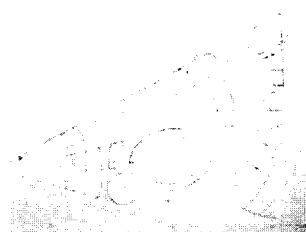
대다수의 시학 이론가들은 어의 또는 의미 변환이 수사적 문체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은다. Métasémèmes라는 신조어는 수사법 전체의 중심적인 문체인 은유를 지칭하는 포괄적인 용어으로써 의미 변환의 핵심을 구성하며 시적 언어의 존재 전체를 결정하는 문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은유의 개념을 정의하면, "은유는 대체가 아니라 한 단어의 의미론적 내용의 수정으로 정의하면서 이 수정은 의미소의 첨가와 삭제라는 두 가지의 기본 조작이 결합되어 생겨난다고 말한다 (『일반수사학』, p.183)." 다시 말해 은유는 두 개의 제유의 결과라는 것이다. 이런 정의를 토대로 그림 13은 은유의 메커니즘을 다음과 같은 도표를 통해 설명한다(p.177).



<그림 13> 제유의 결합

이렇게 은유는 상호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 코드의 요소들을 하나의 공통부분을 매개로 결합시키며, 그럼으로써 두 요소의 결합 자체를 새롭게 인식 및 해석하게 만든다. 어쨌든 은유는 두 가지의 코드를 충돌시키는 방법으로서 새로운 시니피에(의미)를 창출하는 수단으로 간주될 수 있다.

물론 건축에서의 은유는 현대 건축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고대 사원의 도면 상징화와 레이트모던 건축에서의 상징주의, 그리고 현대 건축에서의 팝아트가 핵심적인 모티브로 채택되었다. 그러나 성당 도면을 장식하는 십자가는 즉각 하나의 규범으로서 코드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포스트모던 건축에서 사용되는 은유는 훨씬 더 다양한 소재들을 사용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림 14> Christian de Portzamparc, 라 빌레트 음악관 평면도, 1990



<그림 15> Takefumi Aida, Toy Block House, 19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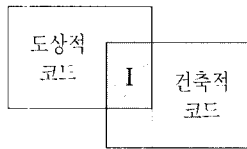
즉 포스트모던 시대의 현대 건축은 보다 더 열린 작품을 만들기 위해 다중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의성을 창출하는 다양한 은유를 혼합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말이다. 어쨌든 안토니아데스가 말하듯이 "은유는 한 건물이 갖고 있는 정체성(identity)으로서 고유성

9)연사구(Syntagme)는 소쉬르의 언어이론으로, 문장의 기능적 단위로서 계열(paradigme)을 구성하는 것이며, 예를 들면 <주어+목적어+동사>의 문법적 계열을 말한다.

10)Ghirardo. Diane, Architecture after Modernism, Thames and Hudson, 1996, p.14

11)움베르토 에코, op. cit., p.407

(authenticity)에 관한 새로운 개념을 이끌어내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¹²⁾는 것이다. 우선 포스트모던 건축에서의 은유적 표현은 건축 언어의 외적 코드로서 크게 <도상·기하학적 코드>와 <대중적 코드>로 나뉠 수 있다. 예를 들어 라 빌레트의 ‘Cité de la Musique’는 혼(horn)이라는 약기의 도상을 차용했으며, Takefumi Aida의 ‘Toy Block House’는 장난감 세계의 한 측면이라고 할 수 있는 블록을 디자인의 소재로 사용했기 때문에 일종의 체유법으로 간주될 수 있다. 위의 은유들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메커니즘에 근거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림 16> 은유의 메커니즘

즉, 두 가지 코드의 충돌은 결합 전체의 이미지를 바꾸어 놓는데 이런 경우는 <건축 = 도상>이라는 동일성 확립에 근거하는 것이다. 또 다른 종류의 코드로는 <대중적 코드 popular code>를 언급할 수 있다. 사실 대중적 코드라는 명칭은 매우 포괄적인 의미로 수용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런 개념은 다른 예술 장르나 작품의 코드를 비롯하여 팝·아트적 코드를 모두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그레이브스의 ‘Walt Disney Swan Hotel’은 ‘백조의 수’를 연상시키는 조형물로 가득 차 있다. 이런 건물에 사용된 조형적 소재들은 대중들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소재들이며 그렇기 때문에 이는 의도적이고 노골적인 차용이라고 할 수 있다(그렇기 때문에 표절이나 모방이 아닌 캐리커처라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대중적 코드 중에는 팝아트 적인 요소들도 포함되는데 그것들의 표현 수법은 주로 콜라주의 기법과 매우 유사하다. 예를 들어 그림 자료(18, 19)는 건물의 장식물로서 킹콩, 야구 모자를 콜라주한다. 이 표현 기법은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는 무언가를 오려 붙이기 함으로써 예상치 못한 의미 충돌을 일으키는 수법이다.

이러한 표현 양식이 현대 건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 현대의 사상적 상황이 전체보다 부분이 우선하고, 이성적인 사고보다는 오히려 부분간의 이질적인 조합이 앞서고 있음을 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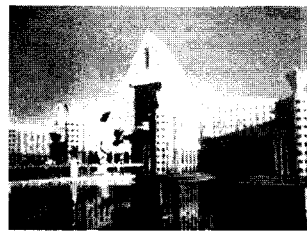
<그림 19> John Jerde, MCA City Walk, 1994

한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병치법 또는 모순 형용법’에 매우 근접한 은유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표 1 참조>. 이렇게 은유는 작가의 명백한 의도에 근거하며 통상적으로 결합될 수 없는 요소를 충돌시킴으로써 새로운 이미지를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포스트모던 건축 작품들의 독창성은 단 하나의 은유보다는 다수의 은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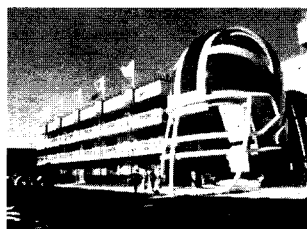
에 근거하는 알레고리를 지향한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건축에서의 디자인 개념들은 다중적인 코드에 기초하기 때문이다. 어쨌든 이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그룹 μ가 <논리 변환>이라고 말하는 일탈 방법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4) 논리 변환

‘일반수사학’에서 논리 변환이라고 부르는 문체들은 근본적으로 지시대상과 관련이 있다. 물론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논리 변환에 근거하는 문체 중에는 변형의 대상에 따라 완서법, 묵선, 침묵, 과장법, 완곡어법, 알레고리, 아이리니 등의 문체가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모든 문체의 핵심은 은유로 귀착된다는 그룹 μ의 견해와 특히 건축의 언어는 일차원적인 시간의 선이 아닌 삼차원적인 공간을 통해 표현된다는 특징을 고려하여 여기서는 알레고리만을 다루기로 한다. 르불(O. Rebul)¹³⁾에 따르면 알레고리는 추상적 사실을 기술 내지는 이야기의 형식으로 전달하기 위해 사용되는 일련의 연관성 있는 은유로 구성된다. 그러나 알레고리는 은유가 아니다. 다시 말해 은유는 비유적 의미만을 갖는 반면에 알레고리는 두 가지의 의미, 즉 글자 그대로의 의미와 비유적 의미를 갖는다는 말이다. 르불에 따르면 페렐만(Perelman)¹⁴⁾은 글자 그대로의 의미를 phore라고 불렀고 비유적 의미를 thème라고 불렀다. 이 점은 건축의 수사학을 분석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가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삼차원적 실체로서 건축은 여러 은유를 혼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은 은유의 은유일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이런 은유에서 사용된 요소에서 건축의 일차적 기능(본래의 기능)과 이차적 기능(상징적 기능)을 모두 지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로 찰스 무어(C. Moore)의 ‘Piazza d’Italia’에서 동원된 표현 기법은 역사적·문맥적·지역적 코드를 일탈하고 있다. 즉 하나의 코드 일탈이 아니라 여러 코드의 일탈이 이 작품을 결정짓는 셈이다. 다시 말해 이 작품은 하나의 은유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건축



<그림 17> Michael Graves, Swan Hotel, 1987



<그림 18> Arquetectonica, All Star Resort, 1995



<그림 20> Charles Moore, Piazza d’Italia, 1979

13)O. Rebul, La Rhétorical, Que sais je?, No. 2133, P. U. F출처

14)Perelman, C. & Olbrechts Tyteca, L. Traité de L’argumentation, La nouvelle rhétorique, Paris, 1958, P. U. F.

12)Anthony C. Antoniadis, Poetics of Architecture Theory of Design, 건축 시학, 김경준 역, 국제, 1994, p.30

언어의 구문론을 일탈하면서도(즉 구문변환의 문체를 사용하면서도) 고대의 소재들을 사용하는 동시에 광장이 위치할 공간 자체를 새롭게 설정하는 등, 일련의 은유로 구성된다는 말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소재들은 기본적으로 이탈리아 반도와 시실리아 섬을 표현하는데 이것이 페렐만이 말하는 phore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반해 이 작품의 thème는 그야말로 뉴올리언스 한 복판에 삽입된 추상적이고 열린 개념으로서의 문화적 정체성을 표현한다. 이렇게 현대적 알레고리의 개념에서 대상에 대한 지시어와 지시대상의 의미관계는 1차적, 또는 2차적인 관계에서 3차원적으로 확장됨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런 특징들에 따라 알레고리적 대상이 가지는 의미는 필연적으로 모호하고 환상적인 성격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포스트모던 건축은 다양한 은유를 사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알레고리를 구성한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포스트모던 건축은 열린 해석을 유발하는 건축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알레고리적 해석을 정당화시킨다. 즉 열린 가능성은 유일의 해석이 존재할 수 없음을 뜻한다. 바야흐로 현대 건축에서는 <역사적 코드>, <새로운 코드의 정립>, <도상·기하학적 코드>와 <대중적 코드> 등은 언제든 혼성적으로 공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4. 결론

간혹 건축가는 기존의 모든 코드를 벗어나는 집을 지을 수도 있고 우리도 그런 집에서 안락하고 <기능적인> 생활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일종의 복합적인 자구체로서 그 집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거주 방식과 방향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새로운 거주 방식을 결코 배울 수가 없다. 다시 말해 우리는 그 집을 <이미 알려진 코드를 가리키는 기호의 문맥>으로 인식할 수 없다는 말이다. 즉 새로운 생활 방식을 제외할수록 건축은 새로운 것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또 내포적 의미라는 다양한 이차적 기능(상징적 기능)을 제시하면서 그런 생활 방식을 설득한다. 다시 말해 건축은 정보를 제공하는 듯 하지만 사실은 새로운 수사적 전략을 통해 사용자가 원했고 이미 알고 있던 건축물의 사용 방식을 확인시킬 뿐이다. 다만 상호적 가치관계 내지는 다른 건축물과의 관계가 일상 생활 속에서 하나의 건축물을 고려하는 방법이 바뀌는 것이다. 이렇듯 현대 사회는 확고한 이념이나 이상이 존재하고 있지 못하며, 주관에 의해 해석된 다양성만이 존재하는 세계처럼 보인다. 특히 건축에서는 후기 산업사회 이후 창조성이라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히면서 이른바 근대 건축의 미적 컨셉트(기능주의)를 뛰어넘으려는 시도가 공간의 개념을 바꾸어 놓았다. 즉 기존의 건축에 기저하는 이성 중심주의를 해체하려는 의도에서 과감한 절충주의를 도입하고 있다. 이 논문의 2장에서는 현대 건축을 시기적으로 모던 건축 이후로 보고 있는데 이것은 방법론적

범위로서 하이테크와 레이트모던에서 나타난 과장된 표현과 은유에 근거하는 상징은 포스트모던 건축을 향한 <다리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커뮤니케이션의 상징은 주로 수사학적 표현 기법으로 간주되는데 이러한 수사학적 표현법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포스트모던 건축의 구성적 특징(균형미에 대한 반란과 잠재적인 공간의 활용)이 새로운 제2 또는 제3의 기능 내지는 역할을 부각시킴으로써, 기존의 공간 개념과 활용 방식을 바꾸어 놓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3장에서는 포스트모던 건축이 일반적으로 자체의 문법(구문론)을 벗어나려는 시도로서 건축의 내·외적 요소들을 일탈시키는 조형화를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구성 방법은 결국 메시지 자체에 관심을 집중시키려는 의도로 일축될 수 있으며 이는 야콥슨¹⁵⁾이 규명한 바 있는 메시지의 <시적 기능 fonction poétique>과 충분히 비교될 수 있다. 이런 유니크한 작품을 추구하려는 의도는 건축 자체를 하나의 시적 메시지로 승격시키는데 커다란 일조를 했으며 이러한 표현 양식은 근본적으로 서구의 문예 역사를 이끌어 온 수사학적 기법에 근거함으로써, 드디어 건축은 한층 더 유연한 언어를 만들었으며 이는 건축의 디자인적 소재를 무한대로 넓히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Antoniaades, Anthony C. Poetics of Architecture—Theory of Design, 김경준 역, 건축 시학, 도서출판 국제, 1994
2. Dubois, J.(외) Rhétorique générale, 용경식 역, 일반수사학, 한길사, 1989
3. Eco, U. La struttura assente, 김광현 역, 기호와 현대 예술, 열린책들, 1998
4. Roman Jakobson, Essais de Linguistique général, 일반언어학 이론, 권제일 역, 민음사, 1989, p.214
5. Harvey, David. The Condition of Postmodernity, 구동회·박영민 역, 포스트모더니티의 조건, 한울, 1994
6. Charles Jencks, 현대 포스트모던 건축의 언어, 배종식 역, 태림문화사, 1987
7. James Steele, Architecture Today, London : Phaidon Press Limited, 1997
8. 박경자, 현대 건축에 나타난 플라주적 표현에 관한 연구, 홍익대 석사학위 논문, 1995
9. 이기간, 現代 디자인에서 Post-Modernism의 수용에 관한 연구, 홍익대 석사학위 논문, 1989
10. Robert Venturi, A Definition of Architecture..., A+U, 7801
11. El croquis, Frank Gehry, 1991~95
12. Susan Langer, Feeling and Form, New York, C. Scribner's Sons, 1953
13. Diane Ghirardo, Architecture After Modernism, New York : Thames and Hudson 1996

<접수 : 1999. 7. 9>

15) Roman Jakobson, Essais de Linguistique général, 일반언어학 이론, 권제일 역, 민음사, 1989, p.214